ECHO

Vol.11

너의 가을을 먹고 싶어

훔치고 싶은 에코의
가을 이야기

11

2017.NOV

ECHO

vol.11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이승민 Lee seung min 조은진 Jo eun jin

부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정지영 Jung ji young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우혜정 Woo hye jung

VOL11 CONTENTS :

E

05 당신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2017 경북 영주 풍기인삼아가씨 이수희

09 익숙하지만 항상 새로운

'너의 췌장을 먹고싶어' 영화의 배경지를 다녀온 학우

13 서울 디저트 페어 초코전을 다녀온 에디터

C

17 당신의 수험생 생활은?

17학번 미컴인들의 고3은?

21 미컴 TMI(Too Much Information)

25 미컴인들의 군대이야기

30 너의 ㅁ 를 먹고싶어

내 손에 쥐어진 능력

31 우린 쓸쓸하지 않아

자기위로법

33 틀리기 쉬운 외래어

H

35 변화를 맞이한 그들 1307

1307 Studio 인터뷰

38 어제로 나로부터 졸업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O

40 붕어빵과 잉어빵의 다른점을 아시나요

41 나뭇잎도 마르고, 내 피부도 마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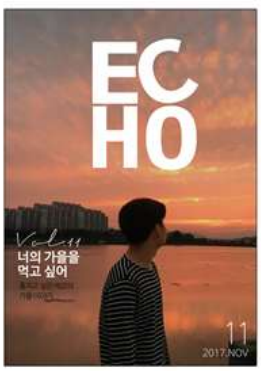
올리브영 알바생 미컴인의 환절기템 추천

43 에코 에디터가 추천하는 겨울템

44 쌀쌀한 가을을 사랑하게 된 이유

45 밤을 사랑하는 여자와 낮을 사랑하는 남자

에코 에디터들이 생각하는 밤



E

engaging

당신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화양연화(花樣年華)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찬란하게 보내고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학교 홍보대사 알림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 경북 영주 풍기인삼아가씨 眞(진)에 빛나는 아름다운 홍보요정 이수희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희입니다.

- '2017 경북 영주 풍기인삼아가씨선발대회' 진이 된 소감 한마디.

사실 아직까지도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데요. 주위에서 해주는 말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영주를 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전하고 싶네요.

- '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 아닐까요. 저에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 4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를 지원할 때도 친구들의 권유가 있었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수상 소감이 특이하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제가 상을 받을 거라는, 특히나 진을 받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프로그램 중에 상 받는 연습을 하는 과정도 있는데 동선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박수 치는 연습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까지 발표가 되었을 때 사실 이미 포기를 한 상태였고, 친구들과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해 놓자는 등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에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얼떨떨했습니다. 막상 불리게 되면 앞에 기자분들이 몰려오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영상을 봤을 때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날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수상소감을 말할 정신도 없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던 거 같아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얼떨결에 대답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놀림 아닌 놀림을 받았던 수상소감이었어요. (웃음)

- 특별히 인삼아가씨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학교 홍보대사 알림이로 일하던 중 콘퍼런스 의전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던 도중 한 기자님을 알게 되었고, 그 기자님께 미인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에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을 해준 덕분에 선뜻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경험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2017 영주 풍기인삼아가씨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인삼아가씨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간단히 부탁 드려요.

대회당일 정신없이 모든 무대를 끝내고 나서 울다가 집에 가는 길에 발을 보니 발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치어서 피가 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피범벅이 된 발이 충격적이었던 동시에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7박 8일 합숙을 풍기에서 진행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잘 떨어트리긴 하지만 첫날 짐을 꺼내면서 핸드폰을 떨어트리게 되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지만 휴대폰의 터치가 먹통이 되더니 액정이 나가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외딴곳에서 연락 닿는 사람도 없어

꽤 허전한 합숙이 되었어요.

- 오히려 휴대폰이 없어서 대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컨디션 조절이 아주 잘 되었어요. 저의 생활패턴이나 합숙에 집중을 더할 수 있었던,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상을 받고 나니 액땜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먼저 1년간의 홍보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해낼 것이고, 대학교 4학년의 신분으로서 취업준비에 열을 더 내야할 것 같아요. 제 꿈인 스튜어디스를 위해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에 필요한 역량 들을 무던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원이 있다면, 내년에 꼭 DCT 친구들과 각자 목표하는 곳에 취직해서 매주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요즘 이 낙에 산다 !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친구들과의 문화의 날입니다. Dreams come true의 약자인 dct 모임인데요. 은진, 수희, 승민 이렇게 세 명이서 마지막 학교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만들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놓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 있겠네요. 진짜 좋아하는 필라테스도 일부러 그 날만은 피해서 잡을 정도로 요즘 제 일상의 낙입니다. 원래 취지는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맴버들이 그 날 전체를 기획하는데요. 주로 미술관 견학, 영화관람, 카페투어나 맛있는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등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특히 얼마 전 친구들이 상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파티를 해주었는데요. 진심으로 감동이었고, 정말 좋은 친구를 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아 사랑해 DCT 파이팅!

- 마지막 ECHO 독자분들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활짝 꽃이 만개한 시기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라는 어쩌면 힘들 수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닫기가 되어줄 이러한 경험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다면 분명히 그 용기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삼아가씨의 인생아이템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인삼아가씨 인생템

이니스프리 그린티 마스크팩
이니스프리

민감한 피부인 저에게 중요한 전날 무조건 해야 하는 팩! 피부 컨디션도 조절해주고, 화장도 잘 먹게 해주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마스크팩 (진짜진짜진짜 저렴한데 효과 좋은 저의 인생아이템입니다!!!!!완전 강추)

슈에무라 강남오렌지 립스틱
슈에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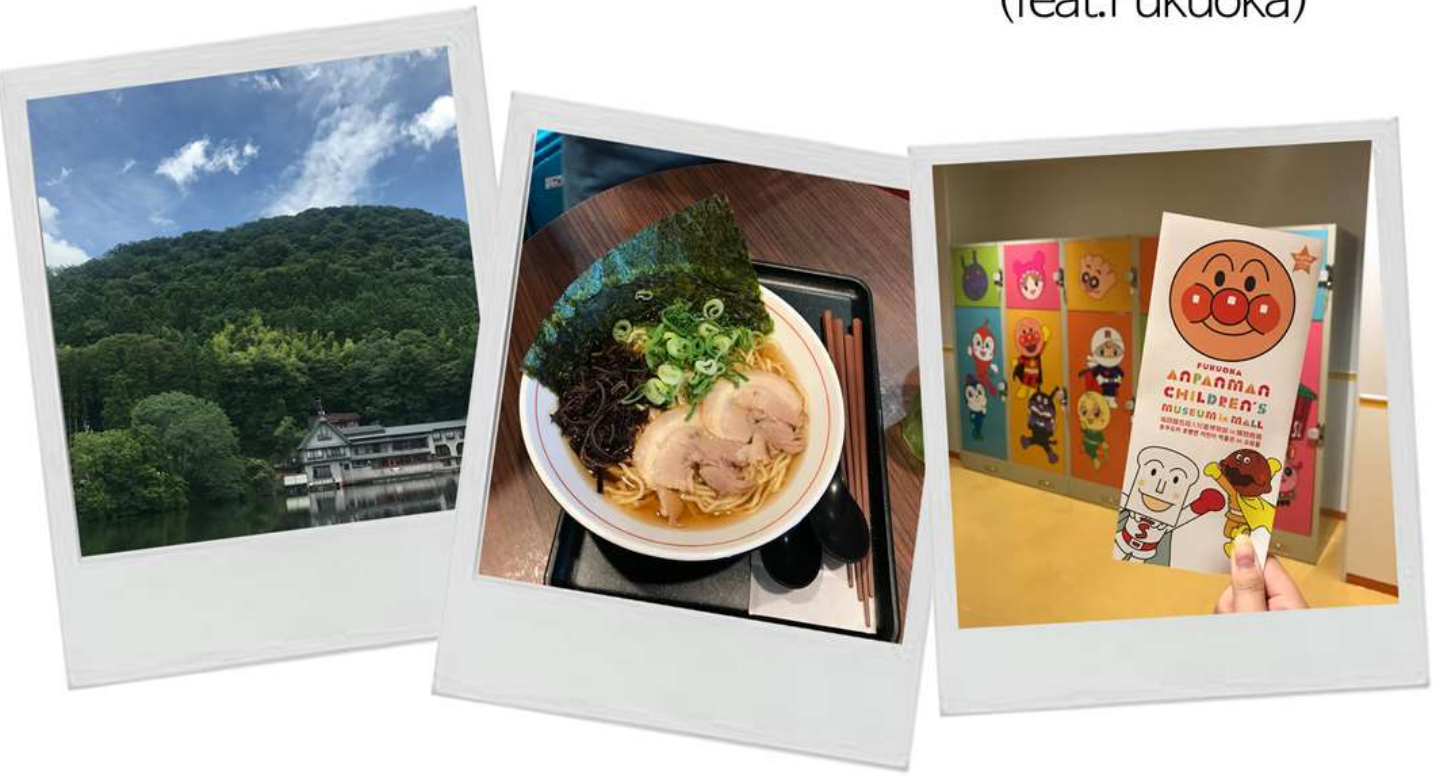
슈에무라 강남오렌지 립스틱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레드 오렌지 컬러가 얼굴의 안색을 살려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잇아이템!)

하와이안 호스트 마카다미아 넛트 초콜릿

하와이안 호스트 마카다미아 넛트 초콜릿 (한 통에 만원정도 되는 사악한 가격) 한 알만 먹어도 황홀해지는 초콜릿. 긴장되는 순간에 먹으면 긴장이 완화되고 미소가 절로 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초콜릿이에요!)

익숙하지만 항상새로운

(feat.Fukuoka)



여름도 다 가고 가을도 소리 없이 우리를 떠나고 겨울이 오고 있는 와중에 무슨 한여름 여행 글이겠냐 싶지만 아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다들 눈치챘듯이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 따온 것인데

이 영화가 바로 내가 지금 쓰려는 여행지의 촬영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사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나는 영화에 나온 다자이후뿐만 아니라 나의 4번째 일본여행, 후쿠오카 여행기를 써 내려가려고 한다.

7月2日 日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한 탓에 배가 고파 공항에 있는 라멘으로 끼니를 가볍게 때웠다.
우리의 후쿠오카 첫 여행지는 유후인이었다. 유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미리 한국에서 예매한 버스를 1시간 10분가량 걸려 유후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거의 비행기를 타고 온 만큼 버스를 타야 했지만 일본에서는 뭔들 창밖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았다.
공항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고 뻗어버렸지만 ^_^

유후인에 도착을 하니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여행 온 일본인들도 많았다. 우리도 캐리어를 맡기고 유후인 하면 다들 가는 긴린코호수로 향했다.
유후인 거리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날씨가 많이 더워서 걸어가기 힘들었지만 가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금상을 수상했다는 금상 고로케도 먹으면서 점점 한적해지는 거리를 보며 걸으니 덜 피곤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긴린코호수는 산 바로 아래에 위치해있었다. 호수 끝에는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호수 한 바퀴를 돌아서 보니
가게가 호수 안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내려오면서 유명한 벌꿀 아이스크림도 먹고
쿠크다스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루 종일 먹었다. 뭐니 뭐니 해도 배부른 여행이 최고다.

유후인 거리를 구경 다하고 포털사이트에 유후인을 검색하면 료칸이 좌르륵 나올 정도로 유명하므로
우리도 료칸으로 향했다. 우리 료칸은 우리 방 바로 앞에 가족탕이 있어 밤에 저녁을 먹고 들어갔는데
몸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하늘은 별로 수놓아져있고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반딧불이도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7月 3日 月

유후인을 뒤로하고 우리는 텐진으로 향했다. 하카타랑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있었다.
7월 후쿠오카에서는 여름을 알리는 최고의 축제인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를 진행하는데 아깝게도 우리가 갔을 때는
축제를 준비하는 중이여서 직접 축제를 보지는 못하였다. 길거리마다 등불과 축제 준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신기하고 부러워 보였다.

7月 4日 火

대망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촬영지인 다자이후로 향한 날이다. 그때 당시에는 영화 촬영지인지 몰랐다.
거리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봤지만 일본어를 읽을 수 없었던 나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한국에 와서 기사와 각종 포스팅을 보고 촬영지인 것을 알았다.
버스에 내려 다자이후 텐만구로 향했다. 다자이후 텐만구로 가는 거리엔 우메가에모찌 가게들이 많았다.
우리도 하나 사서 먹었는데 한입 베어 무니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 다 데일뻔한 기억만 남아있다.
향하던 길엔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었다. 건물 앞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사람이 안 나오게 사진을 찍는데 힘이 들었다. 텐만구 신사에는 소 동상이 하나 있는데
만지면 학업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만지고 왔다. 그
리고 빨간 다리가 하나 있는데 과거-현재-미래를 뜻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직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사진에 정신이 팔려 왔다 갔다만 몇 번을 반복했다 ^^;;

7月 5日 水

후쿠오카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후쿠오카 거리를 돌아다니면 호빵맨이 길바닥에 많이 그려져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호빵맨을 좋아하는 동생이 그걸 놓칠 수 있겠는가 하카타에 호빵맨 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아내 가게 되었다.
나랑 동생 둘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다.
하지만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놀러 온 유치원생 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호빵맨 박물관에서 신기했던 점은 우동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점이 특이했다.
그 점을 알게 된 이상 귀여운 호빵맨과 친구들이 그려져있는 그릇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우리는 우동과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동생이 우동 그릇을 날려버려 와장창 깨져버려 컵만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ECHO 김고은 kge3421@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서울 디저트 페어

초코전

SETEC 전시장 11.11-12

주변에서 당뇨병에 걸릴 거라고 저주를 퍼부어도 꿋꿋하게 먹던 나에게
서울 디저트 페어는 감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초코전이라니! 이건 꼭 가야해!

ECHO 김고은 kge3421@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홀린 듯이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새벽 4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첫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페어가 열리는 학여울 SETEC 앞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같이 간 친구와 줄을 서서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씨이야기, 안에 어떤 디저트가 있을지 기대된다는 이야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는 이야기 등 을 10여분 정도 했을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참여한 사람들 규모에 비해서는 빠르게 입장 할 수 있었다.3번 홀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112개의 부스와 부스만큼이나 수많은 디저트들 이었다. 마카롱, 머랭 쿠키, 에끌레어, 머핀, 판 초콜릿, 베이비 슈, 커피, 솜사탕, 각 종 잼...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저트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눈길을 끌었고 새롭게 뜨고 있는 디저트들은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부스에 가장 많이 전시 되어있었던 마카롱은 동그랗고 단순한 맛을 벗어나서 귀여운 캐릭터모양이나 빼빼로 모양으로 또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한 색과 바다 소금맛, 인절미 맛, 쑥 맛과 같이 새로운 맛으로 전시되어있었다. 낱개로도 세트로도 파는 마카롱은 선물용으로 좋았고 양 많고 저렴한 머랭쿠키와 함께 불티나게 팔려 물량이 없는 부스도 많았다. 페어를 가기 전 참여부스를 잘보고 계획을 짜야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멍하게 서있다 친구가 잡아끄는 대로 정신없이 다니면서 구경했다. 눈만 마주쳐도 시식과 시음을 권하고 상냥하게 명함을 주셨다. 너무 상냥해서 주는 대로 받다보니 사지도 않았는데 명함은 수십개가 되고 시식과 시음으로 배고플 틈이 없었다. 또 3번 홀 바로 옆 1번 홀에서는 '서울 금손 페스티벌'도 열리고 있었는데 각 종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디저트 페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두 홀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하면서 구경 할 수 있었다. 종일권을 끊은 사람이라면 아예 건물 밖으로나갔다가 다시 재입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들어올 때 다시 줄을 서야 한다는 점!

ECHO 김고은 kge3421@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코하쿠토

ASMR이 유행하면서 최근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디저트가 하나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코하쿠토라는 디저트인데 식용색소와설탕을 주재료로 만든다. 영롱한 색깔과 보석 조각 같은 생김새에 자칭, 타칭 디저트 덕후인친구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결제를 했다. 주재료가 간단한 만큼 별다른 맛은 없지만 소리가 정말 기분 좋게 바사삭거렸다. 하지만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추천하지는 않는다.

-프렌치 마들렌

코코넛, 레몬, 초콜렛 3가지 맛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들렌은 사오고 하루가 지나서 먹었지만 촉촉하고 포실포실한 식감이 좋았다. 특히 제일 추천하고 싶은 맛은 레몬향이 은은하게 나는 레몬마들렌한 봉지로 묶음판매도 하고 맛별로 낱개 판매도 하고 있다.

- 라라롱

라라롱은 위에서 언급했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마카롱을 파는 부스였다. 신기한 맛의 마카롱을 팔고 있었고 이미 유명한 브랜드라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친절하게 제품 설명도 해주셨고 서비스도 좋았다. 식상한 마카롱에 질려있다면 추천하고 싶은데 먹어보고 난 뒤 더 추천하고 싶어졌다. 마냥 달지만 않고 각 맛이 잘 살아있었고 특히 인절미마카롱은 높은 연령대도 좋아했다.

디저트는 단순한 군것질거리? 이건 예술이야!

디저트는 단순한 군것질이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킹 실력과 여러 재료에서 영감을 얻고 창작해내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페어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업계의 트렌드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디저트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나처럼 가볍게 즐길 수도 있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장 조사의 기회가 될 것 이다. 디저트 뿐만 아니라 페어 그 자체의 활기에 다시 한 번 반하게 되었고 앞으로 망설이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의 박람회나 페어에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초코전이라는 콘셉에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초코전의 느낌은 잘 살지 않았다.물론 각 부스마다 초코와 관련된 메뉴도 있었지만 딱히 메인이 되지도 않았다. 내부 인테리어라도 초코와 관련된 장식을 했다면 조금 더 콘셉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C

communicating

당신의 수험생 생활은?

절 취 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 험 표

직인

접수번호	20111
성 명	조 은 성
주민등록번호	******-*******

시 험 시 간 표		
교시	시 간	영 역
1	08:40~10:00 (80분)	국 어
2	10:30~12:10 (100분)	수 학
3	13:10~14:20 (70분)	영 어
4	14:50~15:52 (62분)	사회/과학/직업탐구
5	16:20~17:00 (40분)	제2외국어/한문

※ 수험생은 08:10분(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스티커 부착
(5㎝ × 6㎝)

절 취 선

2017. 11. 23

고3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네요.

여러분들의 수험생 생활은 어땠나요?

조용했던 교실, 책상에 쌓여있는 문제집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풋풋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작년에 수능을 치고 대학에 입학한

17학번들의 수험생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뒷면의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읽어 보십시오.

	주 관 식 답 란
성 명	답 란
공유나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버린 수험생** 2016. 11. 17 가장 무서운 8자리 숫자였다. 어쩌면 나의 고3 시절은 단지 수능을 위한 시간이었다. 쌀쌀한 공기가 맴돌고 있을 때즈음, 초록색칠판에는 하얀색글씨로 D-15 라는 글씨가 써져있었고, 복도에선 정숙이라는 표지판이 크게 걸려 있었다. 정숙이라는 무시무시한 두 글자를 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도 나의 하루를 보낼 그 곳으로 발을 옮겼다. 사각사각 거리는 연필소리와 친구들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교실 속 나의 자리에 의자를 끌고 앉아 책상 밑 어지럽게 박혀 있는 문제집을 꺼냈다. 나의 하루는 가방을 내려놓는 것보다 문제집을 꺼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문제집을 펴서 틀린 문제에 먼저 눈을 두었다. 틀린 이유를 모르겠는데 틀린 이유를 찾아야 하고 내가 보기에는 답이 아닌데 답지에는 그게 답이라고 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답을 찾고 풀이 과정을 다 쓰면 어느새 나의 배꼽시계에 맞춰 점심시간 종이 땡하고 울렸다. 그렇게 조용한 교실을 벗어나 시끄러운 급식실에 들어가 밥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 시간도 잠시, 점심자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문제 푸는 기계가 된 것처럼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누군가 오늘 학교에서 뭐했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였다. 문제 풀었다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풀고 어느새 밖을 보니 해는 어디로 갔나싶고 나의 마음처럼 까만 어둠이 찾아왔다. 그렇게 문제집을 덮고 나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다. 나는 3년을 그렇게 야자가 끝나면 집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다.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싶지만 고등학교 땐 학원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학원으로 들어가 나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또 문제집을 폈다. 정각 12시가 되면 그제서야 집으로 갈수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셨을텐데 딸내미 집에 들어왔다고 반겨주는 엄마와 무뚝뚝하지만 묵직하게 왔냐고 물어봐주는 아빠가 보였다. 들어오자마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 오늘? 오늘 애들이랑 밥 먹고 재밌었어 라고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시 엄마는 공부는? 하며 되물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고 싶은 공간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그냥 흐지부지 말을 끝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때론 그렇게 내일 풀 문제들을 위해 잠이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내 울음소리가 무서워서 얼굴을 끌어안고 운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또 아침을 맞았고 밥 한술 뜨고 가라는 엄마의 말을 뒤로하며 까매진 교복 카라를 접고 문제를 풀러 학교에 갔다. 나의 고3 생활은 늘 문제집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끝냈다. 그 때는 많이 힘들었다. 그냥 아예 놓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3때 만큼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언제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 고3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힘이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그렇게 많이 웃은 시간도 고3이었고, 엄마와 나의 진로를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나를 다시 돌아봤던 시간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고3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나의 고3, 많이 힘들고 지쳤었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시간이 고3, 그 예쁘고 아름다웠던 열아홉 수험생시절이었다는 것을..
김아현	**나의 수험생 시절은 수능공부가 아니었다.** 누군가 본인의 수험생 시절은 어떠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답은 '재밌었어요' 이다, 나도 내가 그 말로만 들었던 수험생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쌓아놓고 공부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고3생활은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다. 옆에 보이는 친구들처럼 문제집을 쌓아놓고 푸는 것, 그것도 수능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문제집, 수능준비 대신 면접 준비를 선택했다. 사실 나는 꿈이 없었다. 그래서 늘 방황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가끔은 꿈이 없는 나 스스로 에게 화가 나서 사과농사를 해볼까? 귀농을 해볼까? 여러 가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내 자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학생부에 들어가기도 했고 학교에서 하는 스터디플래너를 열심히 적어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수학창의력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공부하느라 바쁜 고3에겐 안중에도 없는 체육대회에도 나갔다. 물론 축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문득 이제 대학입학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면접'을 준비했다. 우선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썼고 각 학교 마다 면접 기출문제를 찾아 친구들과 1대1로 면접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다보면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면접 날짜가 나왔고 깔끔한 교복차림에 긴장된 마음을 꾹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뒷면의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읽어 보십시오.

	주 관 식 답 란
성 명	답 란
김아현	누르고 면접을 보러갔다. 떨리고 긴장 됐던 순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나의 번호가 불리고 교수님과 마주 앉아 면접을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 늘 면접 준비를 해서 그런지 질문을 받는 순간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내가 해야 할 말들이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오면 아직 여러 학교의 면접이 남아있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이 놓였고 잘 끝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고3하면 다들 수능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딱딱하게 앉아 하루 종일 문제 푸는 것이 힘들다면 나처럼 친구들과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면접 준비를 통해 친구들과 나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한 답변을 친구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보충할 수 있었다. 고3, 수험생 시간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공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지만 나처럼 공부 말고 또 다른 길로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웅기	**수험생 시절을 회상하며** 나에게 지난 2016년은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모두가 평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나였다. 나는 2016년 6월부터 체육 대학 입시를 위해 운동에 매진했다. 미래에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을 도우는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9월 손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둬야 했다.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재수를 고민하기도 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수시 지원을 앞두고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결국 재수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예전 목표였던 스포츠 기자라는 꿈에 다시 기웃거렸고 그것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지원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운동을 하면서 소홀했던 공부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면접을 앞두고 고등학교 면접반에도 가입해 뒤늦게나마 준비에 돌입했다. 평소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면접은 웅변 실력보다는 자신감과 나의 태도를 확인하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여럿 이어진 고비를 잘 넘겼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다. 2017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현재 지난 수험생 시절을 회상하면 많이 그립다. 친구들과 공부하며 머리 맞대고 고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고등학교라는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더 큰 물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 인생 가장 바쁘게 보낸 한 해가 2016년이 아닐까 생각된다. 짧게 말하자면 내 수험생 시절은 평생 함께할 친구들과 고민하며 한 숨 쉬었고, 함께 기뻐했던 한 해이기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반면 부상으로 인해 잊고 싶었던 악몽도 섞여 있었기에 나한테 큰 경험이 됐던 시절이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 짧지 않은 한 해 후회 남지 않는 수험생 시절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보내보고 싶다.
김효영	**내 꿈을 찾을 수 있었던 나의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는 나의 꿈을 찾기에 바빴다.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1학년 땐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1학년이 자나갔고 2학년 땐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졌다. 2학년 중간 쯤이었을것이다. 과외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고 흥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다 나는 예전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의 꿈은 화장품 마케터의 길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난 화장품마케터가 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들어 가야했다. 꿈을 찾기에 바빴던 1학년 2학년을 지나 드디어 나의 진로를 확정해야 하는 고3이 되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고3때 꿈이 잠깐 바뀌어 방황하긴 했지만 결국 신문방송학과로 돌아왔다. 나는 광고 홍보학과를 원했었고. 수시원서를 넣으면서 여러 학교의 신문방송학과와 광고홍보학과를 찾았다. 6개의 수시원서를 넣었고 그중 하나가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처음 접했을 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작년까지는 신문방송학과였고 이번년도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공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원서 6개중 1개를 쓰게되었다. 내가 지원한 학교들은 다 최저등급이 있었고, 교과전형에 지원하면서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공부를 했다.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 수능을 봤고 면접을 보러 대구대학교를 처음 왔었다. 면접을 보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다니고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뒷면의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읽어 보십시오.

주 관 식 답 란	
성 명	답 란
김효영	있는 대구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러 학교에서 결과가 나왔다. 물론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도 붙었다. 그 결과에 맞춰 어디학교를 들어가야 나의 진로를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까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나에게 매력 있게 다가왔고 내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기에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했다. 내가 꿈꿨던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하며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학과에 온 게 맞는걸까? 하며 고민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도 하니 지금은 내가 하고 싶었던 영상제작도 해보고, 웹 드라마도 촬영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온 것을 만족한다. 우리 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선배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우리 과에 만족한다.

ECHO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MI(TOOMUCHINFO)

익명의미컴인
학과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오후 5:00

1 오후 5:01
17 손민경 학우.
그리고 17 이다혜 학우는
모두의 마블 할 때만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익명의미컴인
학과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군가요?
오후 5:03

1 오후 5:04
15 이진아, 곽미소 학우와
17 성재혁 학우라고 합니다!

익명의미컴인
우리 학과에서 성격이 초창기 때와
현재 완전 정반대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후 5:05

1 오후 5:06
조사 결과 13 홍성혁 학우의 독주.

익명의미컴인
우리 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후 5:07

1 오후 5:08
17학번 김아현 학우와 13학번 양인철 학우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익명의미컴인
각 학년 별로 누가 술을 제일 좋아하나요?
오후 5:09

1 오후 5:10
1학년 공유나 학우, 2학년 이솔미 학우
3학년 양인철 학우, 4학년 고태정 학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MI(TOOMUCHINFO)

익명의미컴인
15학번 김지영 선배 요즘 학교에서 안 보이시던데 자퇴하셨나요?!?!?
오후 5:11

1 오후 5:12
뭐랄까... 휴식기랄까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원래 자다가도 연어를 보면 벌떡 일어나는데요. 몸이 너무 지금 건강한건지 연어를 먹어도 토할 정도로 행복해요. (웃음)

익명의미컴인
은진선배 햄최몇이요~
오후 5:13

1 오후 5:14
담백하게 세트하나 먹습니다.
(질문해주신분 연락주세요 같이 버거킹가게)

익명의미컴인
진아선배~ 여기서까지 춤춰봤다!
오후 5:15

1 오후 5:16
서문시장, 2.28공원, 수성못 무대에서 춰봤구요..이색적인 장소로는 축제 때 캠퍼스 길거리, 즉석 댄스 배틀을 위해 이월드 무대 위에서도 춰봤습니다...

익명의미컴인
진아선배~ 교수님 성대모사 어떻게 터득했어요?
오후 5:17

1 오후 5:18
이거 교수님이 보시는거 ㅇ...아닌가요?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데, 매일 교수님 수업을 듣다보니 자연스레 관찰하게 되면서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

익명의미컴인
이진아 이주윤 최수미 이신혜 홍주연 이렇게 5명이서 고기 몇인분 가능?
오후 5:19

1 오후 5:20
대패 40인분, 삼겹 30인분 가능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MI(TOOMUCHINFO)

익명의미컴인
수미선배~ 특이한 물건들 많이 사시던데 어떤 것까지 사보셨나요?
오후 5:21

1 오후 5:22 이런 것 정도?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와요...

익명의미컴인
나영선배~ 왜 맨날 단발머리예요?
오후 5:23

1 오후 5:24 단발한지 5개월밖에 안됐어요!
아직은 더 하고싶어요!

익명의미컴인
순환선배~ 귀걸이 몇 개 있으세요?
오후 5:25

1 오후 5:26 2개!

익명의미컴인
편집실에 누가 제일 오래 있어요?
오후 5:27

1 오후 5:28 11학번 권세철 학우, 12학번 이형일 학우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는 16학번 김민지, 전재연 학우가 치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MI(TOOMUCHINFO)

익명의미컴인

병호선배~ 우원재 코스프레 가능하신지?

오후 5:29

1 오후 5:30 당연하죠! 할 수 있어요! 못할게 뭐 있어요!

익명의미컴인

석태선배! 슬리퍼는 왜 신고 다녀요?

오후 5:31

1 오후 5:32 내성발톱의 힘입니다! 내성발톱이 너무 심해서 신발을 잘못신어요.

익명의미컴인

고태정선배님 별명이 왜 티티 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5:33

1 오후 5:34 군대이야기라서 지루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대에 있을 때 한창 어떤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티티였어요.그걸 보고 선임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익명의미컴인

16학번 김민지 선배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시나요?

오후 5:35

1 오후 5:36 미술학원을 다니면 됩니다~

익명의미컴인

영윤선배~ 언제 오세요?

오후 5:37

1 오후 5:38 아무튼 복학은 내년에 하고 한국에는 2월에 들어가요!

익명의미컴인

정섭선배에게 야식이란?

오후 5:39

1 오후 5:40 보통은 하루를 조금은 더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때로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다행히도 일이나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

 Editor 김고은 kge3421@naver.com | Designer 권재승 sung1347@icloud.com

지짜 사나이들의 지짜 군대이야기

Q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경) 재일 :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3학번 곽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 남부 경찰서 방범순찰대 1소대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로 전역했습니다.

(해군) 중일 : 반갑습니다. 3학년 나중일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해군 갑판병으로 입대해
2016년 3월에 전역했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6개월은 행정병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2차 발령을 받아 작전사령부 본부 정훈공보실(홍보실)에서 공보병(언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육군) 용호 :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4학번 조용호입니다.
1사단 11연대 수색중대에서 근무 했습니다.
전역하거나 남성분들 있을 때 하던 군대 얘기를 여기서 꺼내려고 하니 뭔가 쑥스럽네요 하하하..

(공군) 현덕 : 안녕하세요. 2013년 6월 24일에 11전투비행단에 입대해
2015년 6월 24일에 만기 제대한 예비역 조현덕입니다.

(해병대)석태 : 안녕하세요. 싫은 소리 못 하는 성격 고치기 위해
재수 끝에 해병대 입대한 황석태입니다. (결국 못 고쳤어요)

Q2. 다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복무하셨네요! 입대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의경) 재일 : 담당되는 보직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방범순찰대에서 근무를 했으니 방범순찰대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는 말 그대로 방범과 순찰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지방경찰청의 경력사정에 따라 기동대의 일과 타격대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주로 시위진압, 방범순찰, 행사관리, 교통관리, 지휘검열 및 기초체력 훈련, VIP경호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시위진압, 방범순찰과 훈련입니다. 간혹 특수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군) 중일 : 해군 복무기간은 23개월로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2개월 길며,
6주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신체검사, 정훈교육, 전투수영, 야전훈련(육군훈련소 훈련과 동일), 수료식 연습 등을 합니다.
특히 해군에게 수영은 빠질 수가 없죠. 1주 동안 전투수영 훈련을 받습니다.
수영의 기본을 시작으로 수상행군과 수난자 구조, 비상이함 훈련을 합니다.
또 자유형 25m, 10분 부유능력 측정을 합니다.
6주 훈련 수료 후 3주 기간 동안 병과에 맞는 후반기 교육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합니다.
물론 시험도 응시하게 됩니다. 총 9주의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헌병과 특수병과 외에는 의무적으로 군함을 타야 합니다. 6개월 의무 함정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전역 시까지 함정근무를 할 수도 있고, 육상으로 발령갈 수도 있습니다.

(육군) 용호 : 저는 육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수색중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MDL(군사분계선, 휴전선) 38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8선은 북위38도선을 기준으로 임의로 나타낸 선이고 정확한 선의 명칭은 MDL 군사분계선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어떤 곳은 38도선을 넘는 MDL도 있고 38도선에 미치지 못하는 MDL도 있습니다.) MDL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사이를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작전 및 감시를 수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육안 및 탐지장비로 적들을 알아차리고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군) 현덕 : 공군은 참새나 아라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깨끗하게 해야 하죠.
그래서 총과 폭죽과 함께 새를 쫓아 버립니다. 엄청난 큰 굉음과 함께 새는 날아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투기와 민항기과 공수기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비행기 소리를 듣고 있자하면 차라리 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소음이 나지만
그래도 거대한 비행기의 압박감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병대) 석태 : 해병대 전역 후 힘든 일을 겪을 때 마다, 군생활 시절 중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편이에요. 해병대에서만 유일하게 진행하는 훈련인 IBS 기습 상륙훈련, 공수훈련 등 하드코어한 훈련들이 많지만,
다치지만 않는다면 전역 후에도 많이 생각나는 훈련들이에요

Q3. 곧 군대를 가게 될 학우들에게 꿀팁 전수나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의경) 재일 :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경 자체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의 폭행, 시위자의 폭행 등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주단속 중 교통사고가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시킨 일은 열심히 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은 눈치껏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죠.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 했다가 욕먹으니까.
근무 시에 함부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나 유흥시설 출입을 하지마세요.
또한, 무전기를 언제든 응답할 수 있게 잘 청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군) 중일 : 군인 적금에 꼭 가입하셔서 월급 모으시길 바랍니다. 해군은 함정생활 시
함정근무 수당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임무(6개월)에 지원하면
월급을 제외하고, 수 백 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순항훈련도 있는데요.
아시아 · 유럽 · 미주 · 오세아니아 등 약 100일 기간 동안 군함을 타고 11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항훈련은 돈을 쓰고 온답니다. 꾸준한 적금과 파병으로 돈을 모아 전역 후
유럽여행 꼭 다녀오세요! 저도 내년에 간답니다.

(육군) 용호 : 꿀팁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임마다 각기 개성도 틀리고 화내는 부분도 틀리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것을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생각이 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군) 현덕 : 사랑 받으려 노력하지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 받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임 비위도 맞추지 말고 후임 눈치도 보지 말고 자신 그대로 지내다 와요.
누굴 위해 군생활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노력하길 바라요.
떳떳한 자신일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인거 아닐까요?
물론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하구요.

(해병대) 석태 : 이 부분은 너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자신이 사회에서도 선배 후배들과 관계를 잘 맺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아니라면 무조건 적극적인 자세로 부대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Q4. 꿀팁을 전수받았으니 이제 군생활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의경) 재일 : 의경 들어가고 얼마 안 지나서 느낀 건 "시위 겁나 많구나."였습니다.
그 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실제로 대구 내의 시위만 월에 평균 3~4번 행사까지
합쳐서 많을 때는 7~8개가량 되기도 합니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경들도 시위자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느낀 점은, 한국 국민들은 아직 공권력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간혹 의경에게 함부로 대하는 시민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경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분들도 경찰과 의경을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 중일 : 제가 근무한 정훈공보실은 군대의 홍보실인데요. 회사 사무실 분위기입니다.
수 천만 원 상당의 DLSR로 사진도 촬영하고, 언론 보도를 스크랩도 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사 뉴스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밖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무적인 업무를 군에서 하게 되어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도 정훈공보실 근무 할 때가 생각나네요.

(육군) 용호 : 저는 집이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하고 아무 걱정이 없었던 행복한 집 생각이
많이 들었죠. 춥거나 더운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거나
더운데도 옷도 벗지 못하고 코딱지 만한 초소에서 수다 떠는 게
전부이니까요. 가끔 군인 관련 뉴스를 보면 댓글에 군인 욕을 하는 분들 계시는 거 보고 참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과 관계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죠.
저는 군인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을 지켜주는 그들의 소중함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에 대한 시선, 인식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군) 현덕 : 자유를 갈망합니다. 아무리 휴가를 나와서 아무리 면회를 자주 나가도 군대라는 족쇄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또 나가서 뭐 먹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가서 어떤 술을 누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지라는 생각을 하죠.
가족 걱정을 하고 미래 걱정을 하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서도 말했듯이 자유를 갈망하는 생각이 전체 생각 중 약 80%를 차지 한다는 것?

(해병대) 석태 :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하구요, 병 문화가 타군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후임과 선임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 사회에서 상사와 후임을 대하는 법에 대한 많은 도움으로 남아있어요.

Q5. 군생활 동안 가장 힘이 됐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의경) 재일 :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이나 장난이지만 잘생겼다고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휘검열 도중 부상'이 충격적이었네요.
지휘검열 훈련을 하는 도중, 당시 신병이었던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대원이
기동대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으나, 오른쪽 다리의 신경이 심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해당 대원이 무탈하게 잘 지내길 이 자리를 통해 기원합니다.

(해군)중일 : 함정근무를 하다 보면, 많이 지칩니다. 군함 특성상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힘이 된 건 훈련소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제가 입대 전만 해도 종교에 대해 굉장히 선입견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거든요.
전역하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많이 놀라더군요.
입항해서 홀로 바닷길을 따라 30분을 걸어 여러 번 해군사관학교 성당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기억에 남는 건요. 국방부·국방TV 주최 '도전! 나도 명강사' 장병 강연대회에서 국방부장관상을 받은 일,
서울에서 정훈콘서트 방송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일이 기억에 남네요.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세월호 구조작전에 투입되어 한 달 정도 진도 해상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육군) 용호 :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2015년 8월4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팀에 수색조 부사관 다리 한 쪽 잃었고 지휘조의 의무관은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C팀이었던 저는 다른 작전에 투입되려고 준비하던 찰나 사건이 터지게 돼서 급히 그 장소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곳에 갔을 때는 화약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이상한 비릿한 냄새도 났었습니다.

철조망 근처에는 K-2소총 개머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신속하게 흩어지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자기 맡은 구역에 은닉해서 주위를 경계하라고 하였으나 제 눈은 계속해서 다친 분들에게 향했죠.
한 명은 눈 만 깜빡거리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명은 다리를 붕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부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을 정도로 충격이 큰 사건이라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입니다.

(공군) 현덕 : 1년에 한 번씩 크게 아플 때가 있어요. 설날 연휴를 침대에서 골골 대다가 결국 입원을 했었죠
. 퇴원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고 다시 침대에 쓰러져 잠을 청할 때 매일 싸우던 동기 녀석이 뒤척이다 뒤집어진
이불을 다시 덮어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병신 골골대기는"이라고 말하던
그 녀석을 저는 제 곁에 둬야할 친구라고 생각했죠.

(해병대) 석태 : 신병으로 처음 전입했을 때 한 일병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라디오 DJ가 되었어요.
하루하루 입대 전 겪은 스토리와 음악선곡하고 노래 부른다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라디오 DJ를 하면서 선임들과 빨리 친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신병일 때 맘껏 이야기할 수 없고, 노래 흥얼거릴 수 없는데
라디오 DJ를 하면서 맘껏 노래 부르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의□를 먹고 싶어?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능력들이 있다. 하지만 옛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닌 남의 능력을 탐내고는 한다.

남의 떡을 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떡을 보는 건 어떨까?

남의 능력을 탐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내 손에 쥐어진 능력을 알고 남이 나의 능력을 먹고 싶어 하게 만들어 보자! 나에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들에게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능력은 고민하지 않고 지르기 이다. 고민해야할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견은 항상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몸이 근질거린다. 특히 옷을 살 때 역시 고민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옷이 있다면 일단 사고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가고 싶은 곳이 생긴다면 혼자라도 거뜬히 갈 수 있다. '혼자라서...'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행동이 앞서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비록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먹고 싶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질리지 않는 것이다. 옷이나, 음악,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듣고, 본다. 옷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어떻게든 매치해서 입으려 한다. 플레이리스트에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넣는다.(거의 10개미만의 곡) 이 곡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취향저격의 노래를 듣지 않는 한 항상 플레이리스트를 유지한다. 현재 플레이리스트도 9월 초에 바꿔서 아직까지 듣고 있다. 유투브를 볼 때 먹방에 빠져서 항상 그 장르를 고집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 모르지만 빨리 질려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부러울지 모른다.

정착하여 편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관찰력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항상 관찰한다.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서 얻어 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면 유행이 보이기도 하며 색깔도 보이기 때문이다. 요즘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내고 옷을 살 때 많은 참고가 된다.

특별하지 않지만 남에게 특별해 보일지 모르는 나의 능력을 소개해 보았다. 자신은 자신의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Editor 김나영 rlaskdud112@naver.com | Designer 손현아 honey_some@naver.com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든다.
날이 갈수록 바람은 살갗을 따갑게 에워싼다.
옷깃을 여민 채 움츠리며 걷는 사람들 틈에서 방황하는,
그로 인해 쓸쓸한 당신에게 마법 같은 주문이 되어주는 말.

우린 쓸쓸하지 않아.

내 쓸쓸함을 함께 해주던, 기꺼이 안아주던 것들을 여기서 풀어보고자 한다.

우린 쓸쓸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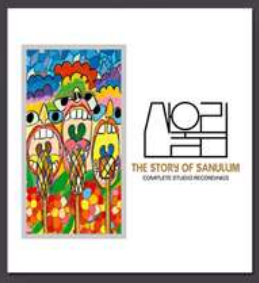
음악

제풀에 식어 버릴 철없는 사랑에
나는 왜 생각 없이 전부를 걸었나
아 아프다 견딜 수 없다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서 숨을 참는다
두 눈 꼭 감고 죽은 듯이

/ 아무도, 아무것도 - 조원선

찌푸린 날엔 아름다운 곳의 꿈을 꾸네
눈꺼풀 뒤엔 초록의 하늘이 번져가고
그 곳에 부는 바람을 한 모금씩 마시면
현실도 잊혀져
난 가벼웁게 흩날리네

/ 플랑크톤 - 쏜애플



짓궂게 생각마세요 이 마음은 더해요
언제나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내게 날개가 있다면
그리움을 그릴 수 있다면
날아가겠어요 보여드리겠어요

/ 더, 더, 더 - 산울림

물빛 하늘도 연두색 오월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 안녕이라고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앞으로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는 행복해질 거라고

/ 마왕 - 자우림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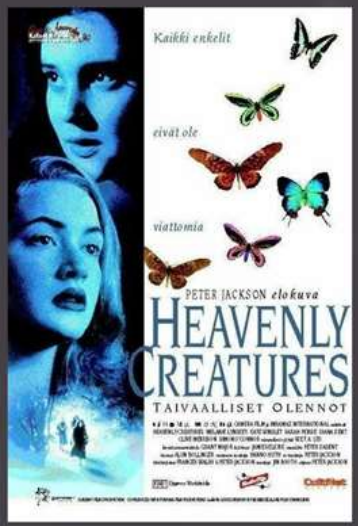
'그리고 가끔, 가끔 나에게 물었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

/ 뷰티인사이드, 2015

'그의 손이 낫지 않길 바랐다.
아픈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다.'

'네 목소리를 여기에 녹음해.
너의 슬픔을 땅 끝에 묻어 줄게.'

/ 해피투게더, 1997



'나 미치는 것 같아.'
'아냐, 지나. 다른 사람들이
미친 거지.'

/ 천상의 피조물, 1994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에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는 양이 매우 많아 모든 단어를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틀리기 쉬운 단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 됩니다. 외래어를 사용하다보면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을 위해 나중일 에디터가 틀리기 쉬운 외래어를 소개합니다.

틀리기 쉬운 외래어(빨간색이 옳은 표현)

가디건 → 카디건(cardigan) / 관리샵 → 관리 숍(shop)
글래스 → 글라스(glass) / 애드립 → 애드리브(ad lib)
네비게이션 → 내비게이션(navigation)
도너츠 → 도넛(doughnut)
드라이 크리닝 → 드라이클리닝(drycleaning)
디렉토리 → 디렉터리(directory)
런닝셔츠 → 러닝셔츠(running shirt)
레크레이션 →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레포트 → 리포트(report) / 브롯지 → 브로치(brooch)
로타리 → 로터리(rotary)
루즈(립스틱) → 루주(프랑스어 rouse)
리더쉽 → 리더십(leadership) / 카라멜 → 캐러멜(caramel)
링겔 → 링거(Ringer) / 미스테리 → 미스터리(mystery)
바게뜨 → 바게트(baguette) / 바디(몸) → 보디(body)
바베큐 → 바비큐(barbecue)
발렌타인데이 →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
블럭 → 블록(block) / 뺏지 → 배지(badge)
비스켓 → 비스킷(biscuit) / 샌달 → 샌들(sandal)
소세지 → 소시지(sausage) / 쇼파 → 소파(sopa)
수퍼 → 슈퍼(super) / 스케쥴 → 스케줄(schedule)
스탭(댄스) → 스텝(step)
스테인레스, 스텐리스 → 스테인리스(stainless)
시츄에이션 → 시추에이션(situation) / 써클 → 서클(circle)
아이섀도우, 아이쉐도 → 아이섀도(eyeshadow)
알콜 → 알코올(alcohol)
악세서리 → 액세서리(accessory) / 액센트 → 악센트(accent)
앰블런스 → 앰뷸런스(ambulance)
앵콜 → 앙코르(프랑스어 encore)
엘레베이터 → 엘리베이터(elevator)
비지니스 → 비즈니스(business)

오리지날 → 오리지널(original) / 워크샵 → 워크숍(workshop)
자켓 → 재킷(jacket) / 쥬스 → 주스(juice)
센치미터 → 센티미터(centimeter) / 대쉬 → 대시(dash)
컨텐츠 → 콘텐츠(contents) / 컨셉 → 콘셉트(concept)
쨈 → 잼(ja m) / 챔피온 → 챔피언(champion)
초콜렛 → 초콜릿(chocolate) / 텔레비젼 → 텔레비전(television)
카운셀러 → 카운슬러(counselor)
앵콜 → 앙코르(프랑스어 encore)
카톨릭 → 가톨릭(catholic) / 카페트 → 카펫(carpet)
커텐 → 커튼(curtain) / 컨닝 → 커닝(cheating)
컨츄리 → 컨트리(country)
컴팩트 → 콤팩트(compact) / 케익 → 케이크(cake)
코코낫 → 코코넛(coconut) / 카라 → 칼라(collar(깃))
타올 → 타월(towel) / 테크놀러지 → 테크놀로지(technology)
팜플렛 → 팸플릿(pamphlet) / 페스티발 → 페스티벌(festival)
플랑카드 → 플래카드(placard) / 잉글리쉬 → 잉그리시(english)
프로포즈 → 프러포즈(propose)
프리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화이팅 → 파이팅(fighting) / 후라이팬 → 프라이팬(frypan)
후레쉬, 후레시, 후레쉬 → 플래시(flash) / 플롯 → 플루트(flute)
프레쉬, 후레쉬 → 프레시(fresh) / 레져 → 레저(leisure)
헐리웃 → 할리우드(hollywood)
라스베가스 →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매니아 → 마니아(mania) / 넌센스 → 난센스(nonsense)
나이론 → 나일론(nylon) / 팬더 → 판다(panda)
판넬 → 패널(panel) / 로얄 → 로열(royal)
스탭 → 스태프(staff) / 심볼 → 심벌(symbol)
돈까스 → 돈가스(ton[豚] kasu)
컨퍼런스 → 콘퍼런스(conference)
나레이션 → 내레이션(narration) / 썸네일 → 섬네일(thumbnail)

H

hosting

ECHO 김가희 rlarkgmlek@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변화를 맞이한 그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푸르게 물들어 있던 길거리는 노랗게 변하듯이 개강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1307 Studio입니다! '누룽지 필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저희가 이번에 '1307 Studio'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누룽지 필름 시절에는 웹 드라마를 제작해 왔고, 이번에는 '가요 톱 10', '리뷰 공방', '파자마'라는 3개의 팀으로 구성해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작, 다양한 리뷰 영상, 뮤직비디오로 3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 기획, 촬영, 편집 등 배우고 경험해보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ECHO 김가희 rlarkgmlek@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13:07

Q1. 이름을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누룽지필름이란 이름도 정말 저희에게 애착이 가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점이 자꾸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또 필름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단 영화나 드라마에 얽매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1307 스튜디오. 즉 우리의 아이디어의 원천인 곳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1307 스튜디오로 바꾸게 되었어요.

Q2. 1307 Studio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웹 드라마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307 VER. 가요톱10, 리뷰 공방, PAZAMA로 3개의 팀으로 나눴어요. 1307ver. 가요톱10은 1307 Studio에서 매주 주제별로 주제에 맞는 노래들을 선곡하고 순위를 매겨 이미지를 제작하는 팀이에요. 리뷰 공방팀은 '어떤 것이라도 전부 리뷰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인데 지난 1화에서는 다이소를 털어보자는 주제로 리뷰를 했었어요. 이제 곧 2화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PAZAMA 팀은 뮤직비디오 제작 팀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가수들의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데 노래 한 곡 한 곡 모두 좋은 노래들만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Q3. 웹 드라마가 아닌 다른 여러 콘텐츠를 다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웹 드라마라는 장르를 함께 할 때도 굉장히 팀워크가 필요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단체인 만큼 각자 하고픈 주제나 콘텐츠들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하고 싶은 콘텐츠들을 하면서 개인 콘텐츠들을 운영할 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고자 했죠. 그래서 많고 다양한 콘텐츠를 하면서 현재 열심히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하.

13:07

Q4.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뿌듯한 점이 있을까요?

리뷰 공방을 재촬영해야 했고 그 재촬영한 것을 다시 2,3일 만에 편집을 완료해야 했기에 매우 힘들었어요. 또 자막 하나하나 편집하고 음향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저희는 밤을 새우면서까지완성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페이스 북에 올린 우리의 영상을 보자 매우 뿌듯했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관심 가져 주면서 즐겁게 보는 모습에 너무 기뻤어요. 부족한 점만 보였지만 리뷰 영상을 사람들이 기다려주니깐 더욱 감사하다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Q5.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주세요!

PAZAMA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촬영 전전날 배우를 겨우 섭외했는데 배우가 촬영 전날 저녁에 일이 생겨서 촬영을 못한다고 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촬영 준비를 마무리하던 중에 배우를 구하느라 진짜 팀원 모두가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함께 하기로 한 스텝이 배우로 되었어요. 막상 촬영을 다하고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영상이 잘 나와서 좋더라고요! 촬영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상상을 했었는데 겪어보니 아찔했지만 찾아보면 또 이런 위기를이겨낼 방법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Q6.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앞으로 1307 Studio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동료와 관객들과 소통하고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 1307 Studio는 누구보다 동료애가 끈끈하고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제작한 만큼 저희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언제든지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과 학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CHO 김나영 rlaskdud112@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어나졸
제로업
의부
터

1. 나태함과 여유의 한 끗 차이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옷은 두꺼워지고 사방엔 나를 녹이는 것들이 만연하다. 히터 바람에 언 손이 녹고 서늘해진 아랫배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훈훈해지는 것 마냥. 한가로이 이불에 들어가 독서를 하는 것도 좋고, 밀린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도 좋다. 그냥 그렇게 나를 감싸는 이불 안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천국은 없겠지. 누군가 그런 나를 나태함이라 이름 붙인다면 콧방귀를 끼며 여유라고 대답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겨울은 여러모로 뻔뻔해지기 좋은 계절임이 분명하다.

2.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숱한 지난날 동안 나에게 물어지던 질문 중 내가 가장 난감해하던 유형의 질문이 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해?' '어떤 음악을 좋아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묻는 말들. 그 속에서 항상 답을 찾으려 무수히도 굴렸던 내 눈동자는 모호한 내 그것과도 몹시 닮아있었다. 취향. 얼버무렸던 숱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나는 이제껏 고민해왔고 정의 내렸다.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영화를 좋아하고그 장르가 멜로가 되는 건 싫어. 구구절절한 가사보단 진취적인 가사의 노래가 더 좋아. 차가운 그레이보단 따뜻한 그레이가 딱 인데. 내 취향을 이해했어?'

3. 다시는 외롭지 않겠다

이제껏 나의 겨울은 외로웠다.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내 속이 추워서.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좋고 눈이 오는 걸 좋아하지만 그때는 그때일 뿐, 잠깐의 설렘이 남기고 가는 허무함의 크기가 상당해서 쉽게 지쳐버리고 만다. 내가 그들에게서 얻는 기쁨은 '와, 크리스마스다.' '와, 눈 온다.' 와 같은 한 문장에서 그친다. 그 말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끝나버리고 만다. 내 마음속에 커다란 블랙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다. 기쁜 감정이 들 때마다 검은 입을 쩌억- 벌리며 재빨리 삼켜버리는 게 틀림없다. 나는 끝없는 허무함과 외로움에 갇혀 겨울을 보낸다.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라서, 굳게 다짐을 하는 것이다. '다시는 외롭지 않겠다. 날 이곳에 버려두지 않겠다.' - 언니네 이발관 〈영원히 그립지 않을 시간〉

4. 어제의 나로부터 졸업,

어제의 나로부터 졸업이라니, 뭔가 결연한 의지가 함축된 문장이다. 나는 졸업이라는 단어에 굉장한 무게감을 느낀다. 내가 가진 것에서 대단한 갈무리를 짓고 떠나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3번의 졸업을 했다. 돌이켜보면 대단한 갈무리를 짓지도 않았다. 그저 남들과 똑같이 밟아오다 보니 3번을 졸업했다. 앞으로도 나는 여러 번의 졸업을 마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학업에서의 졸업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내 미래가 학업으로만 점칠 될 인생은 아닌지라. '우둔한 나에게서 졸업', '우울한 나에게서 졸업'을 준비하는 현재. 나의 대단한 갈무리는 이 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졸업은 마침표 같지만, 되돌이표 같다. 한 번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제의 나로부터 졸업해야 한다니.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보면 한없이 불만스럽고 불완전하기에 서둘러 갈무리를 지어 다름을 얻고 싶은 마음인데. 어제의 나는 이렇게 덤덤한 어투로 졸업을 하고자 한다. 서툴고 두서없던 어제의 나로부터 졸업에 함께 해주어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O

outriching

붕어빵과 잉어빵의 다른점을 아시나요

차가운 공기가 몸속을 뚫고 들어올 때면 우리는 겨울이 문득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다.
두꺼워진 옷을 여미며 주위를 보면 언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붕어빵 가게가 많이 보인다.
가게를 보자마자 곧바로 옷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며
붕어빵 이모에게 건넨다. "이모! 팥 두 개랑 슈크림 하나요" 하면서 말이다.
따뜻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동안 허공을 차다가 문득 보이는 커다란 글씨를 읽어본다.
"황금 잉어빵" 붕어빵이라고 생각했는데 잉어빵이라니..

물론 그 커다란 글씨를 보고 붕어빵이나 잉어빵이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왜 붕어빵과 잉어빵이 다른지. 생각해보니,
그런 음식이 꽤 있는 것 같다. 하나 예를 들자면 호빵과 찐빵 처럼 말이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호빵, 찐빵하면 하얗고 연기가 폴폴나고
그 속을 쪼개보면 까만 팥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붕어빵과 잉어빵 또한 마찬가지다. 붕어같은 잉어, 잉어같은 붕어.
알 수 없는 물고기가 새겨져 있는 노란색 겉모습에 속은 팥과 슈크림이 가득 차 있는.

누군가는 말한다. 붕어빵은 빵처럼 두껍고 통통하다고,
잉어빵은 붕어빵에 비해서 얇고 팥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하지만 가끔
그럴 때도 있다. 잉어빵이 두꺼울 때도 있고 붕어빵이 얇을 때도 있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붕어빵 또는 잉어빵 가게 이모 마음이 아니겠나?

도대체 왜 붕어빵은 붕어빵이고 잉어빵은 잉어빵이야? 하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궁금함을 풀기에는 당신의 두 손에 가득 들려있는 붕어빵과 잉어빵이 식을 것 같으니
당신이 하면 되는 것은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는 붕어빵, 아니 어쩌면 잉어빵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머리부터 먹을지 꼬리부터 먹을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붕어빵, 잉어빵 따질 겨를이 어디있나? 맛있으면 되는 것을.

나뭇잎도 마르고
내 피부도 마르고

환절기(명사); 계절이 바뀌는 시기

엄청난 더위의 여름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되는 환절기로 인해 우리들의 피부는 망가지고 있다.
이유는 우리들이 피부는 어느 정도의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데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높아서 이 보호막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부각되고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필자가 환절기에도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로 인해 피부의 진정과 보습을 한꺼번에 원할 때 /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스플래쉬함초스파

120ml 2만5천원대

보습 수딩 팩,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에 쿨링감으로 진정시키고 갯벌의 산삼이라 불리는 함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강력한 보습에 가벼운 발림성.

리리코스 딥 씨 워터폴 크림

50ml 2만8천원대

젤 타입 수분 크림, 정제수 대신 해양심층수를 사용하고 이와 함께 즉각적인 쿨링감을 선사. 또한 가벼운 젤 타입일 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된 이온차징워터로 풍부한 보습감을 부여함.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70ml 2만8천원대

슬리핑 크림 팩, 피부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밤 동안 지친피부를 진정시키고 효능 성분이 잘 흡수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젤 타입의 제형.

/ 속부터 수분을 채워 쉽게 건조해지지 않기를 원할 때 /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125ml 6만5천원대

워터 타입 에센스, 라이프 플랑크톤이라는 자연 농축 성분이 워터 타입으로 피부 속부터 수분감을 가볍게 채워줌.

헤라 셀 에센스

150ml 6만원대

워터 타입 에센스, 피부 활성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피부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생체수 모사 성분을 업그레이드 하여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흡수와 효과를 도와줌.

/ 외부로부터 손상 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싶을 때 /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

50ml 4만5천원대

회복 크림,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외부자극에 의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을 가진 병풀 추출물 함유. 되직한 연고 타입 크림으로 건조한 계절에 보습감도 함께 선사.

리얼베리어 시카릴리프 크림

35g 2만6천원대

문제성 피부 해결크림, 피부보호 및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문제성 피부를 케어해주는 칼라민 성분 함유. 피부 해결 크림 제품의 특유의 끈적임이 없고 산뜻하게 스며드는 제형.

갑작스럽게 찾아 온 추위에 여러분은 지금 옷장을 헤매고 있지 않으신지요?
오락가락한 요즘 계절 우혜정 에디터가 사보고 입어본 추천하는 아이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해 주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폰에버리의 '에일리언 이문지 니트'

요즘 계절에 니트는 뗄 수 없습니다. 강의실에 10명 중 6명은 니트를 즐겨 입을 것인데요. 하지만 무난한 베이지, 블랙, 아이보리 니트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줄 곳 해왔습니다. 두툼하면서 귀여운 외계인 패턴이 들어간 이 니트를 추천합니다.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초록색 외계인들이 박혀있습니다. 안감이 두툼하고 실밥의 지저분함을 감추기 위해 귀여운 줄무늬 안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디테일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커버의 'STAND COLLAR CARDIGAN'

카디건은 사랑입니다. 조금 쌀쌀할 땐 아우터, 추울 땐 이너로 입을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저는 어커버의 'STAND COLLAR CARDIGAN'을 구매했습니다. 라운드 넥으로 되어있으며 단독으로 입어도 귀여운 카디건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색과 베이지색을 구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옷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추가 카디건 소재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니메이트 '달별 자수패치 장갑'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져야할 필수 아이템은 바로 장갑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벙어리장갑이 보다 일반 장갑이 더 눈에 띄는데요. 촌스러운 디자인이 아닌 젊을 세대의 취향에 맞게 다른 옷과도 무난히 코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갑은 손등에 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 쪽에 다른 자수로 포인트를 줍니다.

애니메이트 '후리스 달별 자수패치머플러'

목폴라를 입는 것도 좋지만 목폴 라가 갑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머플러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머플러는 직접길이 조정이 가능하여 목폴라 보다 답답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머플러를 목에 감으며 따뜻함이 생깁니다. 옷차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머플러이기도 한데요. 심심한 목에 두르면 목도 따뜻하고 옷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즘 계절에 어울리는 옷을 사서 착용해보고 추천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꼽아서 소개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추천 아이템을 보고 참고하여 요즘 계절에 맞는 옷을 장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CHO 조은진 eeww0118@naver.com 손민정 thsalswjd11@naver.com

쌀쌀한 가을을 사랑하게 된 이유

"이젠 제법 날이 쌀쌀하네. 잘 지내?" 뜬금없이, 문득 외로운 날 우리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일상을 꿈꾼다. 괜히 스쳐 지나갔던 지난날의 인연들이 떠오르고,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은 차가운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생각한다. 아 가을이구나 완연한 가을이 왔구나. 나는 가을을 특별한 계절이라 생각한다. 왠지 손에 잡히지 않는, 허무맹랑하게 지나가버리는 가을이지만, 속이 텅텅 비어버린 붕어빵을 닮았지만 눈이 오는 겨울이 되면 그제야 아 나는 가을을 사랑했구나 느껴버린다. 마시멜로우를 잔뜩 올린 한 잔의 코코아에 얼어붙었던 손을 녹이고, 감지 못하고 나온 머리에 푹 눌러쓸 수 있는 털모자와 한껏 올려 신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양말까지. 내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가 써놓은 몇 권의 책만 있다면 이 쌀쌀한 계절,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을 금세 떨쳐낼 수 있다. 당신의 가을은 어떤가. 낙엽이 떨어지는 이 완연한 가을. 어떤 것들이 가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지 떠올려보자. 아마 모르긴 해도 꽤 많은 것들이 당신을 아주 기분 좋은 가을로 맞이해 주고 있었을 것이다. 미친 듯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더 가을을 사랑해야지. 행복해야지.

1. socks

2. som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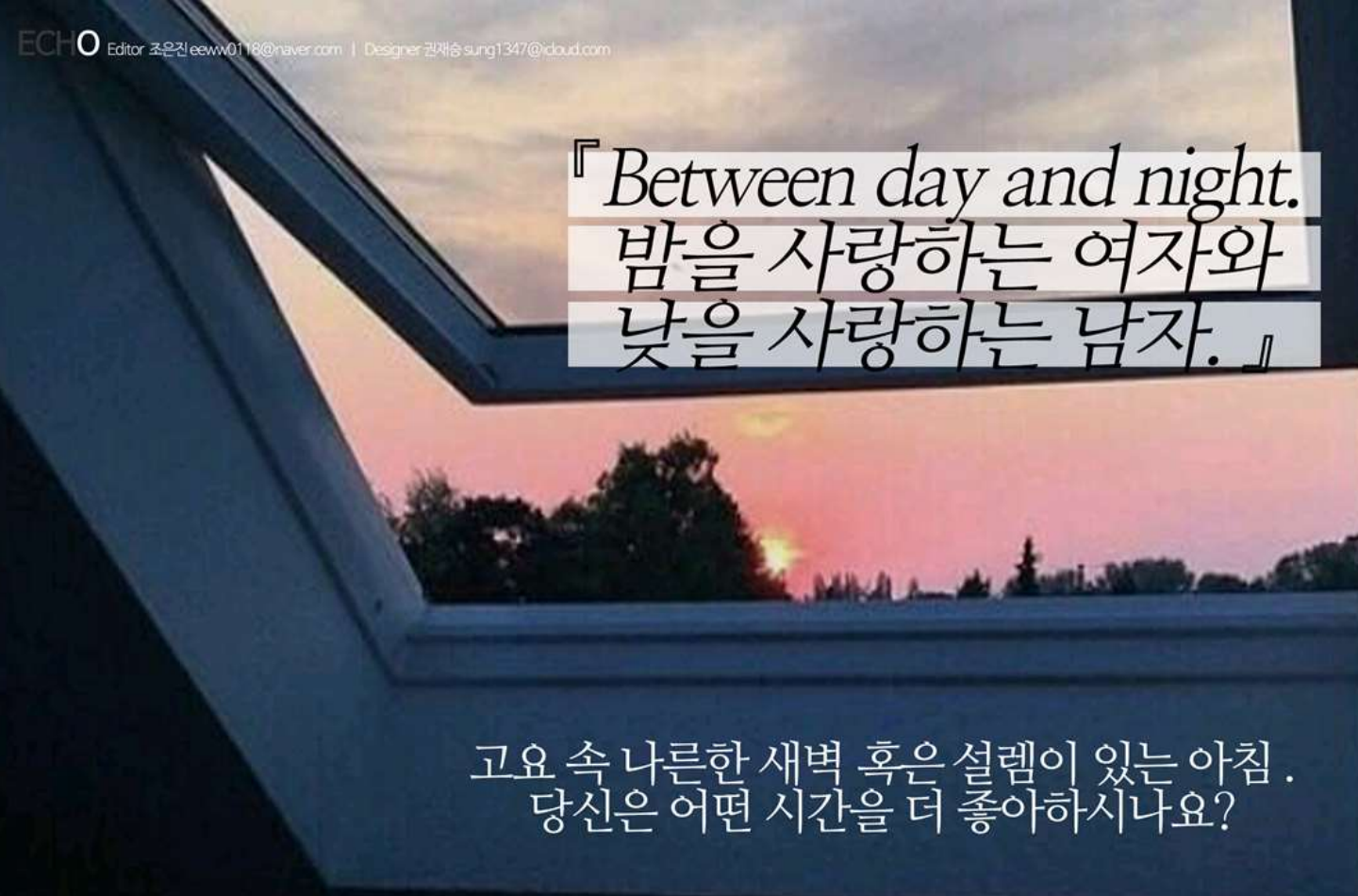
3. wooden hat

4.hot! cocoa (feat.marshmallow)

5.hand cream

6. long- long coat

ECHO Editor 조은진 eeww0118@naver.com | Designer 권재승 sung1347@icloud.com



『Between day and night. 밤을 사랑하는 여자와 낮을 사랑하는 남자.』

고요 속 나른한 새벽 혹은 설렘이 있는 아침 .
당신은 어떤 시간을 더 좋아하시나요?

"I WISH SOME NIGHTS LASTED FOREVER."

밤의 시간이 가장 긴 겨울이 곧 다가오는 지금. 고요한 새벽의 예찬을 해보려 한다.

새벽 공기를 맞을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함을 느낀다.

오롯이 '나'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나는 밤을 사랑한다.

새벽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만은 영원이고 싶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주 고요한 적막 속에 나는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곤 한다.

그리고 강한 고요가 주는 힘을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물들면, 나는 흰 도화지가 까만 먹물 속에 흠뻑 젖어버리는 듯 어둠을 깊이 만끽하는데,

중독이 강한 새벽녘의 냄새도 좋고, 새벽에 듣는 재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또 새벽에 읽는 시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다.

마치 시를 쓴 이가 나에게로 다가와 찬찬히 읊어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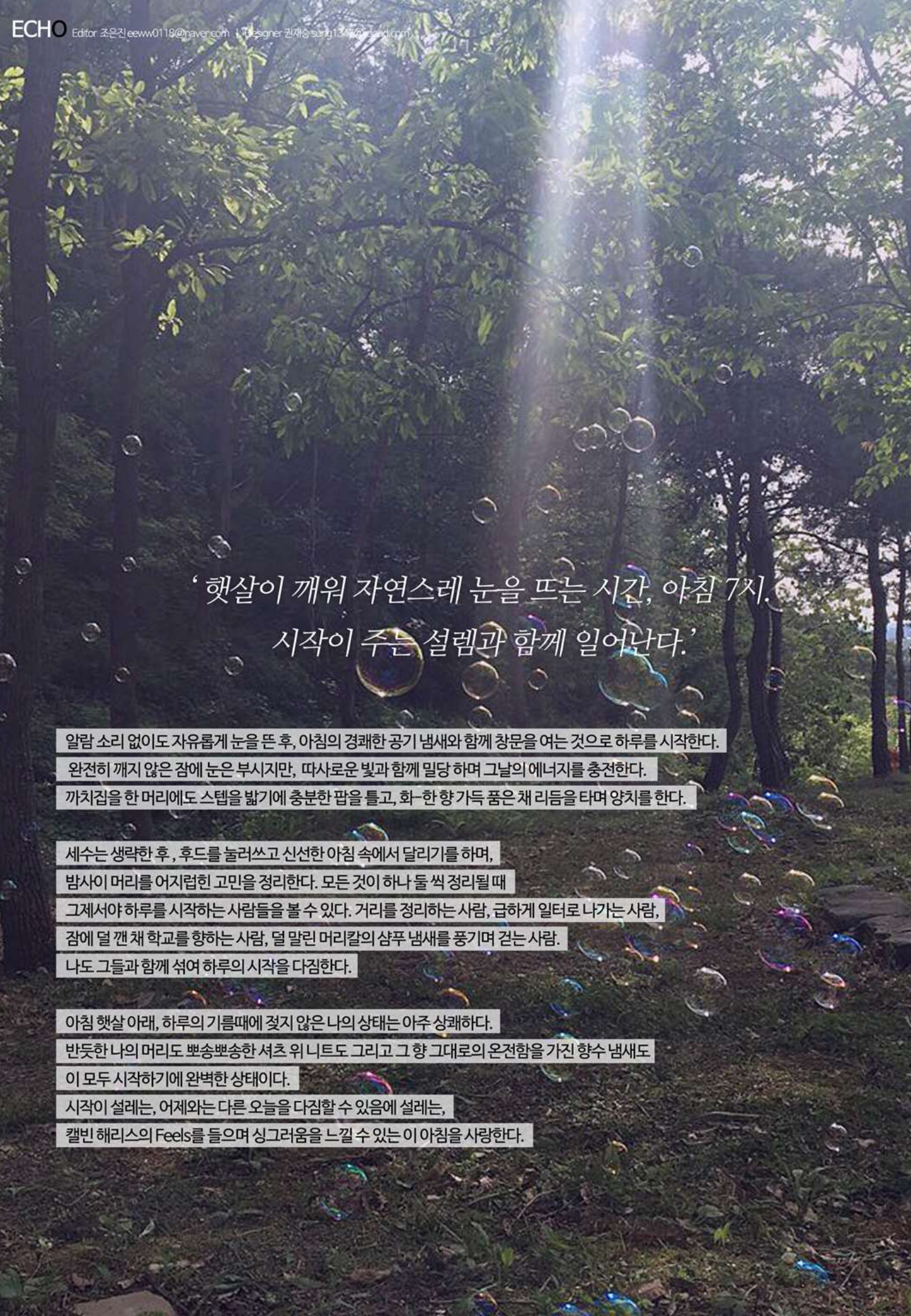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이 깔려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밤이 선사해주는 무모한 용기,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우울이라는 감정.

어쩌면 새벽은 나를 현실 속 꿈나라로 데려가 주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든 것이 힘이 빠진, 이 나른함을 사랑한다. 모두가 활기를 띠며 활동하는 낮에는 절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

그게 바로 내가 이 늦은 밤을, 새벽을 사랑하는 이유다.



‘햇살이 깨워 자연스레 눈을 뜨는 시간, 아침 7시.
시작이 주는 설렘과 함께 일어난다.’

알람 소리 없이도 자유롭게 눈을 뜬 후, 아침의 경쾌한 공기 냄새와 함께 창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완전히 깨지 않은 잠에 눈은 부시지만, 따사로운 빛과 함께 밀당 하며 그날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까치집을 한 머리에도 스텝을 밟기에 충분한 팝을 틀고, 화-한 향 가득 품은 채 리듬을 타며 양치를 한다.

세수는 생략한 후 , 후드를 눌러쓰고 신선한 아침 속에서 달리기를 하며,
밤사이 머리를 어지럽힌 고민을 정리한다. 모든 것이 하나 둘 씩 정리될 때
그제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거리를 정리하는 사람, 급하게 일터로 나가는 사람,
잠에 덜 깬 채 학교를 향하는 사람, 덜 말린 머리칼의 샴푸 냄새를 풍기며 걷는 사람.
나도 그들과 함께 섞여 하루의 시작을 다짐한다.

아침 햇살 아래, 하루의 기름때에 젖지 않은 나의 상태는 아주 상쾌하다.
반듯한 나의 머리도 뽀송뽀송한 셔츠 위 니트도 그리고 그 향 그대로의 온전함을 가진 향수 냄새도
이 모두 시작하기에 완벽한 상태이다.
시작이 설레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다짐할 수 있음에 설레는,
캘빈 해리스의 Feels를 들으며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아침을 사랑한다.